

# 전남농기원 농업전문인력 2587명 양성

단기 1897명 장기 480명  
81개 과정 3월부터 교육 시작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남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19개 분야 81개 과정 2587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에 나선다.  
19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하며 단기과정으로는 농촌융복합 전문가 양성 및 전남의 지역특화작목인 아열대 과수, 신규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교육, 4차 산업혁명 대응 무인 자율주행 농업기계 교육 등 전문화·세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12개 분야 50개 과정 18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기과정은 농업분야 최고 고급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리더양성을 위한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생명농업대학, 농업경영자과정으로 3개 분야 24개 과정 48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교육생을 모집중에 있다.  
지남해와는 달리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 과일 발효주 제조, 귀농 마스터플랜, 여성 귀농인 역량강화, 전원생활형 귀촌 등 농식품 가공 창업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화로 농업인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전남도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고객감동 현장 실용교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8일 남해화학(주)과 함께 양파 기계화 재배 전용 완효성 복합비료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의 양파 재배면적은 2020년말 기준 5,743ha로 전국(1만 4673ha)의 약 39%를 차지하는 주산지이지만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2~3회 걸쳐 비료 주는 작업이 번거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해화학(주)은 비료 살포에 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단 한 번만 살포해 양파 생육기에 따라 필요한 만큼 비료가 용출되는 전용복합 비료 시제품을 개발, 농업기술원과 함께 현장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1월 전통주 ‘나누우리 막걸리’ 선정

순천농협·순천주조 제조

전남도는 1월을 대표할남도 전통술로 순천주조의 ‘나누우리 막걸리’ (사진)를 선정했다.  
막걸리의 이름인 ‘나누우리’는 나누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쌀 소비 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 순천농협과 순천주조가 손을 잡고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다. 막걸리에는 순천지역에서 생산된 햅쌀 100%가 주원료로 사용되며, 첨가물을 최소화해 우유처럼 하얗고 목 넘김이 부드럽다. 알코올 도수는 6%로 기본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특 특 청량감과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며, 숙취가 적고 트립이 나지 않아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나누우리 막걸리’는 국가 지정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제1회 대한민국 주류품질회에서 탁주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 대표 막걸리와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주조 선정되는 등 술맛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조병준 순천주조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술맛을 사로잡는 막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업과 함께 성장한 전통주



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민족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고, 맛과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도장터’ 온라인 설 기획전 2월10일까지 최대 76% 할인

전남도는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0일까지 ‘남도장터’에서 온라인 설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번 설 특판 행사에선 선별된 한우, 전복, 굴비, 과수, 건강식품 등 총 583개 제품이 판매된다.  
제품은 66%까지 할인되며 10% 추가 할인쿠폰까지 적용받으면 최대 7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남도장터 쇼핑몰뿐만 아니라 우체국쇼핑과 제이슨그룹, 롯데슈퍼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31개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대별로 1~2만 원대의 알뜰 선물세트부터 식품명인 제품,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등 8~9만 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물용이나 제수용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 ‘1월의 남도 명품숲’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

전남도가 12곳 전문가 심사 거쳐 선정  
전남도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올해 방문해야 할 1월의 남도 명품숲으로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 (사진)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올해 남도의 명품숲을 널리 알릴려 휴식과 힐링 여행 명소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계절별 아름다운 숲 12곳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을 1월의 숲으로 결정했다. 목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은 사계절 아름다운 곳이다. 약 500년 된 소나무가 3ha 군락지를 이루고 있고 숲에서 바라본 바다

경관이 아름다워 마음까지 힐링되는 명품숲이다. 곰솔은 소나무과로 지역에 따라 해송(海松) 또는 흑송(黑松)으로 불리기도 한다. 잎이 일반 소나무 잎보다 역선 깎임에 곰솔이라고 부르며, 바닷가를 따라 자라 해송, 줄기 꺾질 색깔이 소나무보다 검은 빛을 보여 흑송이라고도 한다.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06일 동안 머물며 군사훈련을 시키고, 정유재란 때 이곳에서 배를 건조·수리하는 등 수군 전략기지로 삼아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곳이다.  
숲 안에는 모충각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린 유허비 등 역사성을 갖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전라남도 기념물 제10호)가 보존·관리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전남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제 급 누락 방지를 위해 근무 이력을 관리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금제 내역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올해부터 발주된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 우체국 또는

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체국·하나은행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해 체류 자격 및 기간 확인을 거친 후 발급 가능하다. 전자카드제 시행의 효과로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금제금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건설사업주는 퇴직금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같은 체계적인 노무비 및 인력 관리로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지난해 측량수수료 83억 감면

수해지역 도민 부담 덜어줘  
전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083건에 83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000만원을 감면받아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80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 2000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6000만원 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춘모 토지관리과장은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진 장편소설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조선의 시인 허남설현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